

퀸즈 보로장

Peter F. Vallone Jr. (D)

안녕하세요, 퀸즈 보로장직에 출마한 시의원 피터 F. 발론 주니어입니다. 퀸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바로 우리 가족, 우리 거리, 우리 사업체들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켜주는 보로장이 필요하기에 저는 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12년간 저는 뉴욕시의원으로, 또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레이 켈리와 함께 일해 범죄율을 35% 감소시켰습니다. 저는 또한 낙서범, 성범죄자 및 총기 밀매범을 엄히 벌하는 법이 통과되도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퀸즈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경험**을 가진 후보는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집을 가진 사람으로서 퀸즈에서 주택 소유자로 살기가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세 증가에 반대투표를 한 소수의 시의원 중 한 명이었고, 수도세 상승을 반대하는 싸움을 이끌었습니다.

본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소규모 사업체를 가진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작은 사업체들이야말로 퀸즈의 주춧돌입니다. 새로 온 이민자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런데, 그렇기에 저는 이런 사업체들이 성공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필요 없는 규제들을 완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체들을 도우려면 먼저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선거철 때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들을 위해 꾸준히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퀸즈 공립학교를 나온 두 딸의 아버지로서, 저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좋은 교육의 중요성을 압니다. 저는 학교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하굣길에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법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영재 프로그램을 위해 싸웠고 이를 지켜냈으며, 학부모 참여를 더 확장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 우리가 더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퀸즈는 우리를 위해 싸워 온 행적을 가진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한 번 검색해 보십시오. 9일간 계속되었던 정전 사태, 제설기가 없었던 폭설, 또 **지금** 라커웨이 주민들이 다음에 닥칠 폭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며 - 콘에디슨,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장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 결과를 얻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퀸즈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아니 언제나 우리 편에서 싸울 보로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표를 주신다면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Petervallone.com 을 방문하시면 저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퀸즈보로 다리는 원래 이름대로 그냥 부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